

일본 섬유 산업 연맹

- 2009년도 글로벌화 활동으로 기반 강화 방침 <2/3>

[4] 정보 발신력 · 브랜드력 강화

(1)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 소재를 철저히 소비자에게 제안

일본 소재의 평가는 해외에서도 높고, 유명 어패럴과의 거래도 프리미어 비전(premier vision) 등에 출품함으로써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 철저히 제안하여, 일본 소재를 통한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는 마케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저팬 패션 위크를 코어(core)로 한 일본 패션 진흥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섬산연은 일본 패션 위크 추진 기구의 이벤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여, 일본 독자의 패션, 일본 브랜드를 힘껏 육성할 계획이다.

[5] 공상 일체(工商一體)의 무역 확대

(1) FTA/EPA를 적극 활용하고, 아시아와의 연휴를 강화

일본 아세안 포괄적 경제 연휴 협정(日本 Asian 包括的 經濟 連携 協定 : AJCEP)은 순조롭게 서명이 끝나 200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하고 있다.

일본과 아세안은 각기 강점을 살려 ‘원산지 규칙(原產地 規則)을 조건으로 하는 관세 상호 즉시 철폐(相互 即時 撤廢)’를 충분히 활용하여 무역 확대나 투자 확대에 이어간다.

(2) FTA/EPA 교섭의 계속

일본의 섬유 산업을 발전시킬 FTA/EPA 교섭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3)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

중소기업이 자사(自社) 브랜드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자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전부

터 기대되고 있는데, 현실로는 경험이나 능력이라는 점에서, 중소 사업자가 단독으로 수출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들 중소 직·편물(織·編物) 제조 사업자의 텍스타일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같은 텍스타일 수출 활동에 대하여는 계속 일본 섬유 수출 기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산지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4) 지적 재산 문제への 대응

중국을 주로 한 지적 재산권 침해(知的 財産權 侵害)의 문제는 갈수록 광범해지고, 심각화하고 있다. 섬산연은 2007년에 설치한 지적 재산 보호 추진 위원회 활동(知的 財産 保護 推進 委員會 活動)을 더욱 강화하여, 각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제휴시켜, 통일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5) 무역 규제 조치의 가장 효율적인 실천

여전히 일본 섬유 산업의 무역 구조는 크게 수입이 초과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부터 안가 상품(安價 商品)의 수입 압력(輸入 壓力)을 받고 있다.

‘특수 관세 제도(特殊 關稅 制度)에 관한 WG’가 설립되어 반덤핑(antidumping) 운영 개선(運營 改善)에 관한 보고서가 종합 정리되는 등, 정부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무역 규제 조치에 관한 제도도, 운영면의 확충도 WTO 룰(rule)로 인정된 범위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실천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6] 일본 국내 사업 기반의 유지 강화

(1) 고 코스트 구조의 개선

일본의 섬유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의 효율화·기업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건비 삭감에 대하여는 생인화(省人化 : 사람을 줄임) 고용 정책 등에서 더 많은 자조 노력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은 에너지, 물류, 사회 자본, 조세(租稅), 사회 보장 부담(社會 保障 負擔), 노동 등에서 아시아는 원래 구미 여러 나라보다도 고 코스트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 코스트 구조를 시정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 정부 관계 기관에 정책 조치를 요구한다.

(2)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의 계속

섬유 산업의 사업 환경은 과거 수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계 금융 기관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의 완전한 대응, 신용 보증 제도의 확충·강화를 정부 관계 기관에 요구한다.♣